



+ 김효진 · 월간 '라 뮤지카' 편집장/미술칼럼니스트

Jean-baptiste Camille Corot

프랑스의 카미유 코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인상주의 작품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마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코로의 삶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자.



입체파를 말 할 때, 파블로 드 피카소(Pablo de Picasso, 1881~1973)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상파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Jean-baptiste Camille Corot, 1796~1875)를 빼놓고서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만큼 코로는 인상파의 시조로서 그리고 당대 프랑스 화풍을 확립한 거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특성은 고전주의와 인상파의 사상적 다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앙리 루소와 장 프랑수아 밀레와 동일한 자연주의적 특성과 인상파의 심미적 가시화의 화풍이 공존한다는 점에 있다. 코로는 모네, 쿠르베, 들라크루아 등이 프랑스정부에서 주체하는 살롱전에서 연달아 탈락한 것과는 달리, 그는 귀족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고르게 받음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화가들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시대의 격동에 휩쓸리지 않고 작가 정신을 불태울 수 있었으며, 더군다나 코로의 그림은 귀족계급에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팬층(동네 아저씨에서부터 구두 수선공까지)을 확보한 드문 경우의 화가이다.



Idylle

코로가 태어난 시기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대혁명의 열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시대였다. 그리고, 서서히 나폴레옹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코로의 나이가 열 살이 되었을 때인 1805년은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되어가는 시기와 맞닿아 있다. 1815년의 1월은 그 전해인 1814년에 영국,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로 구성된 동맹군과의 전쟁에 패해 프랑스 남부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였고, 우리의 카미유 코로는 20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을 때였다.

1815년 당시의 프랑스 인구는 러시아에 이어 2,900만의 인수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적자원이 많은 나라였으며, 패전국이 된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의 중심지로 모든 예술가들이 동경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에는 20년간의 혁명과 전쟁으로 인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대중들은 불안에 떨며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든 것이 막연했다. 바로 그 해 3월 20일 밤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 6월 18일 워털루전투에서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남태평양의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기는 바로 코로의 청년기와 연결되어 있다.

코로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철학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른바 그를 둘러싼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추종하거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조의 철학이 바로 그것이다. 서로가 자기만이 옳다고 싸우던, 당대의 첨예한 사상들과의 거리두기가 그가 선택한 생의 방편이었다.

카미유 코로는 당대의 일급 평론가들인 보들레르, 상플뢰리로부터 “단순성의 미학과 꾸밈없는 순수의 환영”이란 평가를 받으며, 그가 살아있던 시절에도 대가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대중과 평론가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상업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로코코시대의 장-오노레 프라고나르 이후 최고의 풍경화가로서 인정받은 행복한 화가였다.

그러나, 카미유 코로 자신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스물여섯 살의 청년시절부터, 걸작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하자마자 붓을 잡았으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코로는 죽음이 그의 콧볼을 깨물 때까지 미혼의 상태였으며, 남은 재산은 사회단체에 기증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코로는 평소에도 “자선은 재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란 말을 자주 했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지기 쉬운 거만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며 오히려 그는 당대의 유명인사 답지 않게,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코로가 살았던 시대의 혁명적 열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붓을 놓지 않은 이유는 예술가는 예술가의 몫이 따로 있다는 그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가를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부르주아 작가라고 비난받았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코로는 묵묵히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그는 십년이나 이십년 후에 ‘열 사람, 스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옆에서 죽어 가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The Morning



Self-Portrait

코로의 그림에 나타나는 특성은 바르비종(barbizon) 화파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인상파의 색채적 특성이 묻어 나온다. 온순한 성격의 그는, 열아홉 살 때부터 아버지 친구의 화방에서 핀을 만들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으며 스물여섯 살이 되어서야, 당대 풍경화의 대가 아실-에트나 미샤용(Acille-etna Michallon)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림의 본격적인 시작은 남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단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재능이 꽃피우기 시작했다.

색채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빛을 발휘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강한 개성의 터치를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그의 풍경화는 햇살의 따스함과 빛의 음영,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그의 화폭에 담아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이런 그의 독특한 터치는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의 절묘한 대비에서 일어나는 효과로 인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다가온다.

그러면서도 또 한 편으론, 귀족적인 화려함이 아닌, 서민적인 소박함이 반세기 이후의 사진작가 외젠 아트제(Eugene Atget, 1858~1927)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넘치지 않는 소박함이 그의 화폭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Young Woman in Greek Dress



Orpheus Leading Eurydice from Underworld



코로의 그림은 귀족들의 취향과 서민들의 취향의 경계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가 1835년 살롱전에 출품한 '사막의 하갈'(Hagar in the Wilderness)이란 그림이 비평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파리화단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코로는 이후 살롱전에서 연속적으로 호평을 얻어냄으로써,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 성공의 정점의 1846년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상하게 되면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

코로의 스승이었던 미사옹과 베르탱은 화가 스스로가 자연 속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신고전주의 방식을 선호했으므로 코로에게 집 밖의 자연 속에서가 아닌 아틀리에에서 풍경화를 그릴 것을 권고했고, 따라서 초기의 코로 그림에서 상상력은 중요한 그림의 모티브로 작용했다. 코로는 유럽구석구석과 바다 건너 알제리까지 계속 여행을 다녔고, 이 여행의 결과물로 나온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 1864년 작인 '모르트폰텐의 추억'(Souvenir of Mortefontaine)으로, 풍경화의 진수를 보여준 코로의 최고 걸작으로 남아 있다(말년의 류머티즘으로 인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초창기의 아틀리에 작업으로 돌아간다).

그는 사물을 묘사 할 때, 의식적으로 먼거리의 풍경을 희미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어지는 향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그의 터치에 여실히 드러난다. 바람의 살랑거림과 물소리가 들리는 듯한 안개의 몽환적인 묘사는 그가 왜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Hagar in the Wilderness



Souvenir of Mortefontaine

카미유 코로의 세계는 평온함이 감도는 아련한 피안의 세계이면서도 사실적인 특성을 놓치지 않는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가능하게 한 요인은, 동시대의 미술비평가인 테오필 실베스트르의 표현대로, 코로의 부드럽고 순수한 품성일 것이다. 코로는 그가 그린 그림이 국가와 시민들에게 인정받았음으로 성공의 부산물인 재산도 넉넉히 있었으나,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감으로서 혁명과 뒤이은 반혁명의 여파로 혼란하던 프랑스사회에서 흔치않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카미유 코로는 프랑수아 밀레가 사망한 해인, 1875년에 죽었다. 그의 그림과 삶이 비추어낸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음악사에 있어,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가 가장 프랑스적인 음악을 창조했듯이, 카미유 코로는 회화에서 가장 프랑스적인 화풍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The Colosseum Seen from the Farnese Gardens



The Bridge at Mantas